그릇을 항상 비우면서 찰나찰나 찰나 생활로 살아라

☞ 21면에서 계속

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인연에 의해서 그게 업보가 되고, 그래서 지금 건건이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할 것 없고 누구 원망도 할 것 없이 내 탓으로 돌렸을 때, 바로 나로부터 그 일을 벌여 놓은 거니까 나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죠. 누가 갖다 주고 누가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숙명통 컴퓨터라고 했고, 그 컴퓨터에 달려 있는 시스템은 모두가 한마음에 들어 있다는 그 사실, 과거에 살던 마음과 지금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부(父)와 자(子)가 둘이 아니게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진짜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지금 화두를 받아서, '무(無)' 자 화두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린 한 단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뭣고?' 하고 가는 것보다도…, 뭐긴 뭡니까? 그대로 한 단계 넘어서서 우리는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나와서 공(空)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온 그 사람이 바로 화두며 공했다. 공했으니 그 무엇을 바깥으로 찾으랴. 과거는 짊어지고 나왔고 미래는 가지 않았으니 바로 현재의 여러분인데, 그 여러분이 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공한 자체가 바로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좌선을 할 때는 그렇게 하죠.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다.' 또는 '네가 있다는 걸 너만이 증명해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觀)' 입니다. 우리가 좌선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선이라고 봅니다. 또 망상이나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 때문에, 망상 때문에 나는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답답한 것이 나온다 이럴 때도 그런 데에 끄달리지 마세요. 팥죽 솥에서 팥죽 끓을 때에 방울방울 지어서 나오듯이 모두 한 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그렇지 어찌 그게 망상이겠습니까? 수없는 중생들과 인연으로 인해 만나서 자기를 이렇게 움죽거리게 하는 직원과 같은데, 어떻게 직원을 망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직원에게서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어떠한 답답함이 나오더라도 그건 자기가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중생들이 답답해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말리지 말고 속지 말고 '아, 답답한 건 거기서 해결할 수 있잖아. 그 한마음 속에서 말이야.' 할 때가 바로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그 찰나입니다. 입력을 다시 해 보십시오, 지워지지 않나.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뼈다귀 한 무더기, 거기다 왜 절을 했던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안 될 때가 없었고 자식이 안 될 때가 없었고 형제가 안 될 때가 없었으니, 지금의 우리 육(肉)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모두가 부모요,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자식이라 이 소립니다. 알고 보면 한 철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이에 한 찰나에 한 철을 겪고, 우리들 그 잎새는 어디로 가랑잎이 돼서 굴러가다가 또 한 번 보이지 않는 데로 굴러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 볼 때에, 내 마음이 흡족하면서 한쪽으로는 정말이지 눈물겨웁도록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두가 마음은 이심전심이요, 몸은 한 몸이요, 움죽거리는 것도 다 똑같고 생명도 다 똑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쫓고 쫓기면서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 몸 벗기도 어렵습니다. 아파서 3년이고 2년이고, 왜 그렇게 앓는 줄 아십니까? 내 몸 벗기가 그렇게 어려워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 바깥에 있는 그 모든 물질에 착을 두지 말고, 자식이나 형제나 부부지간이나 이런 것에도 착을 두지 마시고, 내 탓으로 돌리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 탓이야, 네 탓이야' 하고 '저놈의 새끼 탓이야, 네 탓이야' 뭐, 이거 이루종차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탓을 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화목하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얼마나 살다가 가겠다고 그렇게 서로 잘못했다고 으르렁드르렁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부정적이고 악의적으로 끌고 나가야만 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이 몸이, 모습을 가지고 철모르고 얼마나 살 것이며 또 철들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철들어서 조금 살다 보면 벌써 머리는 희뜩희뜩하게 다 쉬어갑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의 공부를 진실하게 해서 모르고 넘어가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無)의 세계의 50%를 모르니까 유(有)의 세계의 50%만 알고 살게 되죠. 그래서 가섭이 아난더러 "너는, 말하자면 무의 세계, 무심(無心)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무심과 유심이 한데 합쳐진 이 크나큰, 광대무변한 도리를 모르기에 한 점의 글씨도 못 쓰니까 자격이 없다." 하고 내쫓았죠. 우리가 이 도리를 안다면 돌에 세워 놔도 산다고 항상 말을 했듯이 어디에 세워 놔도 참으로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 한번 믿고 뛰어넘을 수 있는
> 그런 큰마음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무마하려면

질문 평상시에는 주인공에게 관하면서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잘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입력된 습으로 인한 것일까요? 그거를 무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그냥 다 정말이지 진짜로 놓을 수 있다면 과거가 현실로 그 당시에 찰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무마시킬 수도 있고 그거를 관할수도 있지만, 둘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 믿으면 과거가 여러분 앞으로 오더라도 이걸 해결을 못 한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게 진 빚이라면 진 빚대로 그걸 갚아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될 때도 있고 그런 거는 그 불가부득 해야 할 문제, 과거에…. 얼른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말 한마디를 합니다. 원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몸체에 뼈가 없고 아주 그냥 흔덩흔덩하는 아이죠. 드러누워서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해요. 근데 부모들이 '어휴, 이거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이 생명이 살아나가나.' 하고선 절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 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소?" 하니깐 지금 빨리 가게 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 그 애한테도 이득이고 우리 식구들도 살겠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걔한테 문서가 지어진 그거는 저승을 가야 그 문서를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저승도 한 발짝이요 천당도 한 발자국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천리만리 아예 까마득한 문제죠. 우리가 마음공부 해서 아는 길을 아는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 거기지만, 온 사이도 없고 간 사이도 없이 할 수 있지만, 거길 갔다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지 하나를 얻어서 그거를 없애야만이 애를 해결을 할 텐데 그거 쪽지를 얻기 위해서 누가 저승엘 갑니까? 천상 심부름하는 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나도 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게 많다 이겁니다. 내가 있는 게 없이 있기 때문에 화하려면은 무지하게 화하고 없어지려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쪽지를, 둘이 아닌 까닭에 가면 쪽지가 나올 수 있죠? 쪽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쪽지를 받아서 없애 버리니까 그때 애가 갔습니다. 뼈가 없고 그러니까. 가서 다시 재생을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듯이 그 모든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 여러분의 문제로 돌아와야만이 주인공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과거 일이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있어도 여러분은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믿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믿어야 그 꿈도 화하지만 모습도 화해지고 다 둘 아니게 없어질 텐데 말입니다.

정말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어서 내가 없다면, 개개인이 전부 내가 없다면 진짜로 그거는 화해서 그것이 다 말갛게 물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하죠. 잘들 공부하셔서 하나도 언짢지 않게 앉아서 그냥 천리만리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게끔 모두 성의를 베푸십시오.

친구를 돕고 싶어요

질문 저와 아주 친한 친구가 조그만 식당을 하다가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친구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도 살림이 어려워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니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그래서 이 마음공부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면, 캄캄하다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도 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라. 나부터 안다면 전부 가설이 돼 있어서 통하니까 전부 건질 수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둘이 아닌 주인공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네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모든 걸 놓으면 아주 마음이 태평하게 되고 모두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거 하나뿐이 아니라 좋은 데로 가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병이 없게 하고,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전부 첨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줄 수가 없습니까? 전부 자기와 둘이 아닌데 어째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까?

지금 이 방에 전구가 여러 개죠? 그런데 스위치를 하나 올리니까 불이 다 들어오죠? 또 요거를 몇 개만 켤 수도 있구요. 이건 자유자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자재권을 가졌어요. 그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해서 자유자재하게 끌어쓸 수가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그 여건을 자재하게 끌어쓸 수 있으니 마음 놀이입니다. 마음으로써 하는 거니 마음으로써 해결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나한테 와서는 요기가 아프고 저 일이 안되고, 무슨 돈을 줬는데 다 떼이고, 보증을 섰는데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둥 이런 말을 할 때면요, 내가 기가 막힌 거 있죠? 기가 막혀요. '세상에, 어쩌면들 저렇게 관습에 세뇌가 돼서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을까.' 하구요. 아무리 말을 해도 씨가 먹히질 않아요. 능하게 좀 한 발짝을 떼어 놓지를 못해요. 그 어린애가 한 발짝 떼어 놨을 때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너 한 발짝 떼었구나! 너 걸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심정일 거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가난을 면하게 해 주려고 해도 떼어 놓질 않아요.

그러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당신네들이 저질러 놓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결을 못 해? 해결을 못 할 일이면 하질 말지, 애당초에. 아주 줄 생각을 하고 하든지 해야지, 왜 내 집을 잡혀서 담보를 서? 부자지간에도 담보를 설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것도 무슨 까닭인가 하면 욕심이거든요.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데서 오는 욕심에 의해서 담보를 잡혀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집을 탕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적게 먹고 편안히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나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죠, 또. 내 몸뚱이가 집이라면 나는 오막살이 토굴이에요. 허허허. 빌딩이나 세련되고 좋은 집이 못 되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 사는 주인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없는 것이지, 집이 크고 좋고 이래서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한생각이 넓으면 둘이 아니게 이끌어 갈 수가 있구요. 진짜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한번 믿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큰마음이 필요합니다. 울고 짜고 해 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몸에 병이나 들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